[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에는 상상력이 감각과 이성 사이에 위치한 불완전한 기능으로 취급되었다. 인간의 정신 기능에 대한 이해, 상상력의 위상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로 들어서는 16세기이다. 상상력의 관한 논의는 플라톤적 사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판타지아(phantasia)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상력을 나타내는 용어였고, 이것의 산물인 판타즈마(phantasma) 또한 플라톤 이전에 쓰이고 있었다. 이 용어들이 심리학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플라톤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스』는 주목을 이끈다. 대화편 중반부에서 판타즈마는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설명의 목적은 모사물을 만드는 기술을 대립되는 두 종으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에이카스티케'와 '판타스티케'가 그것인데, 단일한 원형을 닮은 일차적 모사물을 에이카스티케라 부른다. 판타스티케는 겉보기에 원형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차적 유사영상인 환상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진리와 형상을 다루는 이데아를 제시한다. 감각을 초월하는 추상적 실재나 자연물과 같은 가시적 실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고나 믿음은 이데아의 모사이므로 이데아로부터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은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과 같이 기껏해야 모사물에 불과한 상상은 플라톤에게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플라톤은 이를 ㉠ 장인 목수가 실재를 보면서 만드는 모상의 침대와 ㉡ 그 모상을 보면서 화가가 그리는 침대의 이미지로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침대의 이미지는 모상의 침대보다 한 단계 더 낮고 더 부정적인 것이다. 판타스티케에 의한 판타즈마는 혼란과 기만을 야기하는 미혹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이 감각을 통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상상력을 의식의 능력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판타즈마를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감각, 사고, 의견과 구별하면서도 ⓐ 상상력을 감각과 의견의 구성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달랐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에서는 지각이 시작되어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단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형성된 형상은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기억이나 꿈과 같은 사고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정신 작용의 마지막 단계는 판단과 추론과 같은 이성의 영역으로, 인식과 사유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상상력은 감각과 사고를 매개하는 영혼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각없이 생성되지 않고, 그것 없이는 믿음이나 의견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성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판타즈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중세에 상상력 개념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대가 되었다.

상상력이 예술의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대에 상상력은 왜 예술적 관점에서 강조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예술을 특정한 정신적 산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대인에게 예술은 미메시스, 곧 모방이었다. 따라서 예술가의 마음은 이와 별 관련이 없었다. 다만 르네상스 시기 상상력 개념은 예술가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현대미술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예술가가 작업의 주문자인 메세나의 수락 없이 상상력을 온전히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미메시스의 규율에서 완전히 벗어나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내적 표현의 단계는 더더욱 이르지 못 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세의 상상력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② 고대의 예술가들은 미메시스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의 마음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다.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상상력과 판타지아를 동일시했다.

④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인간 의식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모방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메세나가 예술적 자유로움을 펼칠 수 있었던 때는 르네상스 이후에 해당한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이데아로부터 가장 멀어진 인식 수준을 가리킨다.

② ㉡은 자연물의 모사물로부터 두 단계 더 낮은 인식 수준에 위치한다.

③ ㉠은 ㉡과 달리 추상적 실재나 가시적 실재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④ ㉡은 ㉠과 마찬가지로 실재가 아닌 허구적 형상을 창조한다.

⑤ ㉠과 ㉡은 모두 상상을 통해 판타즈마를 만들어낸다.

3.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각은 감각보다 항상 먼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판타즈마가 주어지면 그제서야 사유의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③ 감각이 부재하면 판타즈마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믿음이나 의견을 내면화하고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